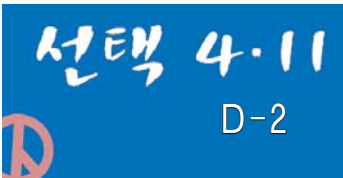


‘숨은 표’가 승부 가른다

광주·전남 격전지 10~20% 향배 촉각
당 지도부 총출동 주말 표심 잡기 총력



표와 부동층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순천·곡성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신뢰도와 현역 시장의 총선 출마에 따른 사퇴, 나주·화순은 인물론과 바닥 민심의 변화 육구가 총동원되면서 숨은 표와 부동층의 최종 향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숨은 표와 부동층의 성향이 여당보다는 야당 지지 성향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광주·전남서는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여당이라는 점에서 일부 접전 지역에서는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각 정당과 후보 진영에서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숨은 표의 적극적 투표 유도와 부동층 공략에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지난 6일 배기운, 박해자, 오병윤 후보 등 광주·전남지역 야권 단일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통해 지지층의 표심 단속과 함께 부동층 잡기에 주력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초박빙 접전 지역이 늘어나면서 여야의 총선 승패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접전 지역이 많은 수도권 승부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원내 제1당은 14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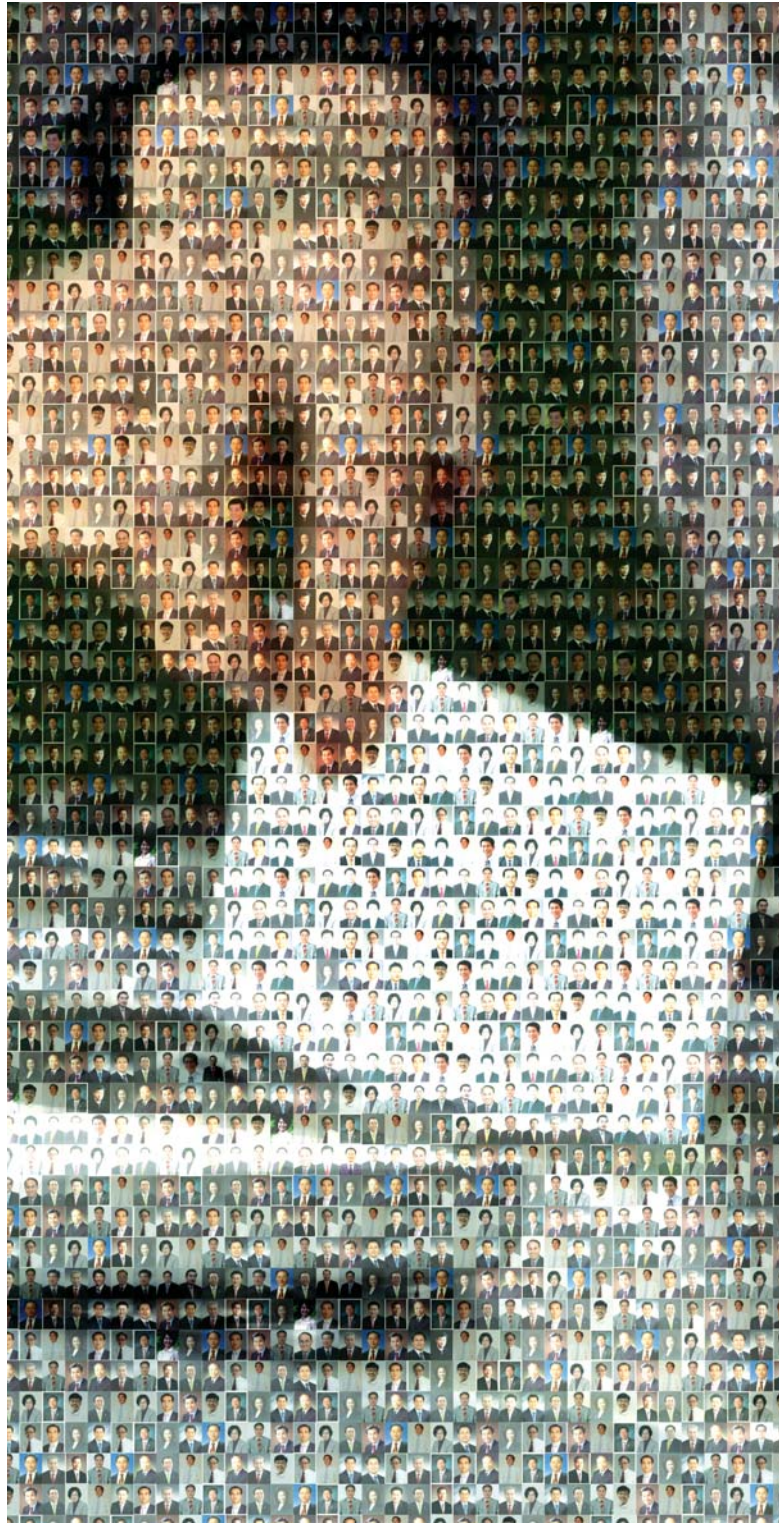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총선일 광주·전남 비 투표율 영향 미칠까

‘4·11 총선 투표율에 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 11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치러져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6.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꼭 투표 합시다”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일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81명의 얼굴 사진과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사진을 디지털 모자이크로 재구성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지방신문협회 총선 전국 판세 분석 ▶4면

광주일보·KBC 총선 후보 초청 토론 ▶5면

“SSM 의무휴업 우린 못합니다”

광주 남구 롯데슈퍼 노대점 시행 첫 날 영업 강행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 시행 첫 날인 8일 광주 남구 롯데슈퍼 노대점이 이에 반발해 영업을 강행했다.

이날 롯데슈퍼 노대점 매장 입구에는 “롯데 가맹점을 해지하고 싶지만 위약금이 많아 해지할 수 없는데다 경영난 때문에 문을 열게됐다”는 현수막(사진)이 내걸려 있었다. <관련기사 9면>

롯데슈퍼 노대점 점주인 강모씨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롯데슈퍼 노대점은 점주의 경영 독립성이 보장된 롯데슈퍼 가맹점 포로 본사에서 강제로 휴업을 지시할 수 없다. 롯데슈퍼 본사는 노대점에 의무휴업 실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지만 점주 강씨는 이를 거절한 채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롯데슈퍼 노대점은 매출부진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이 아직 공포(이달 중순 예정)되지 않아 롯데슈퍼 노대점은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남구청은 롯데슈퍼 노대점에 경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사진=김진수기자 jeans@

선거운동 막판 비방·흑색선전 난무

강진, 서구갑·을 고발전...복을, 화순 식사 제공 공방

4·11 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고질적인 비방·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후보 간 고발사태가 이어지는 등 선거 막판 ‘혼탁 선거’가 위험수위까지 치달고 있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장흥·강진·영암 후보는 8일 무소속 유인학 후보 측의 연설원 2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조만간 유 후보도 고발할 예정이다. 황 후보는 이날 “유 후보 측이 각종 거리유세와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로 비방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황 후보가 지역구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사실이 양심선언을 통해 드러난 만큼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무소속 조영택 서구 갑 후보도 방송토론회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라광천이나 구정장 지원 등과

관련 왜곡된 발언을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민주통합당 박해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4·11총선 최대 격전지 광주 서구를 선거구에서는 ‘현수막 훼손 사건’과 ‘선거운동원 폭력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무소속 정남준 후보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수막 훼손 등 오병윤 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전원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현수막 업체가 오 후보의 현수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 북구를 선거구와 화순·나주 선거구는 ‘식사 제공’ 논란으로 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무소속 김재균 광주 북구 을 후보는 선거위가 민주통합당 임내현 후보 측이 시·구위원을 포함한 선거 운동

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6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점을 문제삼아 임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며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임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이 구태의연한 흑색선전과 후보 비방식 선거를 하고 있다”며 이의 종단을 촉구하는 등 두 후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나주·화순 선거구에서도 무소속 최인기 후보가 민주통합당 배기운 후보 배우자의 ‘식사제공’ 의혹을 공격하고 나섰고, 배 후보 측은 “경찰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최 후보 측이 불리한 판례를 만회하기 위해 ‘의혹 부풀리기’ 등의 구태정치와 하고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선거위는 “선거 막판 후보 간 비방·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MORE PACIFIC
광주지역사업부

예비맘을 위한 특별한 혜택 제 1회 아모레퍼시픽 광주 맘스쿨 예비맘교실

- 행사일시 2012년 4월 27일(금) 오후 2시
- 행사장소 아모레퍼시픽 광주지역사업부 사옥 3층 대강당 (광주 금남로 5가 지하철 1번 출구)
- 참가대상 임신 16주 이상인 모든 예비맘
- 참가신청 공식 네이버 카페 아모레퍼시픽 광주 맘스쿨 http://cafe.naver.com/apmoms
※ 참가자 발표 및 자세한 사항은 카페 참조 (발표: 4월 25일)
- 행사내용 1부 - 강의 : 아모레퍼시픽 / 주제 : 아토피 피부 관리법
2부 - 신나게 놀아보자!! 레크리에이션
3부 - 경품 추첨
- 문의전화 (062) 231-1755



"아모레퍼시픽 광주 맘스쿨"을 쳐 보세요!!

검색

협찬사: 아기천사스튜디오, 엠스텔라, 타니비엔날레 레스토랑